



10월 1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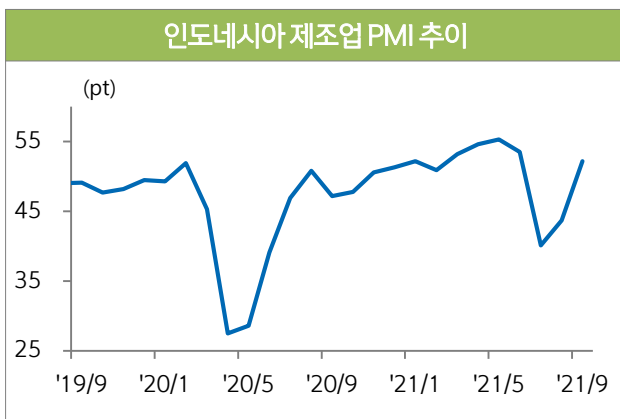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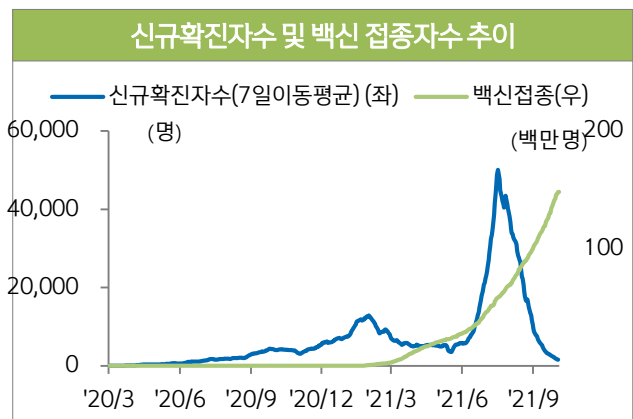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9월 제조업 PMI, 경제 재개에 힘입어 50pt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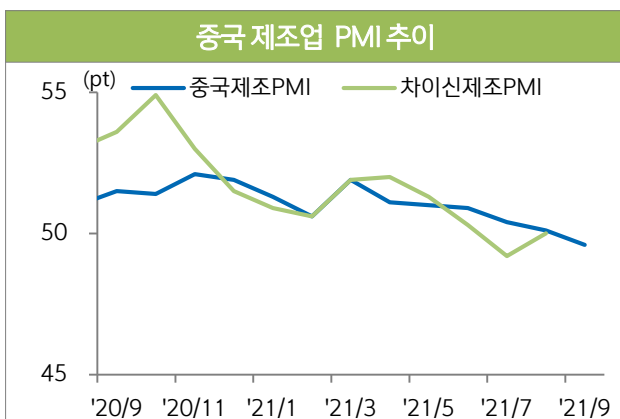
- ▶ 9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는 52.2pt를 기록하여 전월 43.7pt에서 반등하면서 기준치인 50pt를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냈음. 9월 들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이 일정 수준까지 제어되고, 1회 이상 백신 접종도 누적 1.5억 명을 넘어서는 등 개선세를 보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화된 보건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동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개된 점이 PMI 개선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됨. 부문별로도 생산 증가, 신규 주문 및 구매활동 증가 등 **선행적인 부문의 개선이 증가하여서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에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활동들이 감지되고 있음.** 산업 생산지표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팜오일과 산업 금속 부분의 상승의 수혜로 수출 부문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다만,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가 지속 하락하면서 기준치인 50pt를 하회하고 있는 점은 주요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는 부문임. **중국에서 발생한 부동산개발업체 형태의 파산 우려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부진 우려는 건축용 원자재에 대한 수요 부진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상적인 처리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추진과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등으로 연결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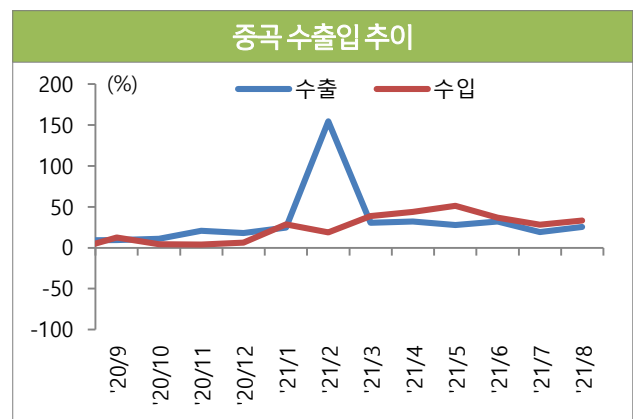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0.1	9.24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34.89	1,351.17	↓ -1.20	↑ 20.93	909.91 '20/10/02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228.85	6,144.82	↑ 1.37	↑ 4.18	4,926.73 '20/10/02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8,765.58	60,048.47	↓ -2.14	↑ 23.07	38,697.05 '20/10/02	60,077.88 '21/09/27
중국	상해종합	3,568.17	3,613.07	↓ -1.24	↑ 2.74	3,218.05 '20/10/02	3,715.37 '21/09/13
	심천종합	2,395.05	2,434.23	↓ -1.61	↑ 2.82	2,149.54 '20/10/02	2,503.85 '21/07/22
홍콩	H	8,726.38	8,604.99	↑ 1.41	↓ -18.74	8,583.82 '21/09/27	12,228.63 '21/02/17
	항셱	24,575.64	24,192.16	↑ 1.59	↓ -9.75	23,459.05 '20/10/0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19.18	3,125.24	↓ -3.39	↑ 5.07	2,267.15 '20/10/30	3,305.21 '21/07/06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0.1	9.24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7	2.15	↑ 2.10	↓ -40.90	2.14 '21/09/20	2.62 '20/11/04
인도네시아	6.24	6.16	↑ 8.10	↑ 35.20	5.89 '20/12/30	6.92 '20/10/02
인도	6.25	6.18	↑ 6.50	↑ 38.10	5.82 '20/12/04	6.26 '21/08/27
중국	2.88	2.87	↑ 0.80	↓ -26.9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2.25	2.16	↑ 9.30	↑ 52.80	1.43 '20/10/02	2.27 '21/09/28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0.1	9.24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755.00	22,770.00	↓ -0.07	↓ -1.48	22,752.00 '21/09/08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308.00	14,258.00	↑ 0.35	↑ 1.84	13,895.00 '21/01/04	14,865.00 '20/10/02
달러-루피 (INR)	74.13	73.69	↑ 0.59	↑ 1.44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4	6.47	↓ -0.33	↓ -1.26	6.37 '21/05/28	6.79 '20/10/02
달러-원 (KRW)	1,188.03	1,176.67	↑ 0.97	↑ 9.34	1,081.81 '20/12/04	1,188.03 '21/10/01

# 주요 뉴스





## 세계은행, 델타변이가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성장 저해했다고 발표



### ❖ 요약 및 시사점

세계 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음. 단순히 성장률 저하뿐만 아니라 빈곤률 상승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둔화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음

-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회복이 코로나19 델타변이의 확산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저해되었다고 세계은행이 발표하였음. 2021년 2분기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향 조정한 것으로 2021년 가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밝혔음. 중국의 경제 성장이 8.5%를 기록하겠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5%의 성장에 불과하여 올해 4월에 분석한 것보다 거의 2% 이상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여러 태평양 지역 섬나라 국가들과 미얀마가 코로나19 델타변이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미얀마의 경우 -18%, 태평양 지역 섬나라 국가들의 성장률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미얀마의 경우에는 쿠데타로 인하여 고용이 가장 큰 규모로 줄어들 것이며, 빈곤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2022년 상반기까지 60%가 넘는 인구가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러한 백신 접종률 증가가 코로나19 감염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치명률을 낮추면서 경제활동의 재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음.
- 코로나19가 컨트롤되기 시작하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현재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2022년 상반기 까지는 개선되면서 내년 성장률을 2배로 개선될 것으로 보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빈곤에 미칠 문제는 장기적으로 겪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경제가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혁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은 당부하였음.
- 세계은행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들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검사 및 추적을 증진하며, 역내 백신 생산 능력을 키우고, 국내 보건 시스템을 보충하는 등의 조치도 동반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 그린 에너지 기반 산업 구축 방향을 재확인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니켈 등 원자재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잠재력 등에 기반하여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의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 그린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 조성 방향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설명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에 그린에너지 산업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비쳤음. **인도네시아는 그린에너지에 기반한 하류부문 산업 조성에 국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 장관은 투자 유치 정책에서 그린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핵심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친환경 컨셉의 산업 발전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공급자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들었음. 전기차 산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니켈 매장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니켈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관련하여 코발트, 망간, 리튬 등과 함께 핵심적인 원자재임. 따라서 배터리 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할 경우 생산 비용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거기에 인도네시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거대 잠재력도 지니고 있는데, 북부 칼리만탄의 Kayang 수력 발전소는 12,0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파푸어 Memberamo 수력 발전소는 23,000MW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또한 북부 칼리만탄 지역에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중부 자바 Batang 지역에 조성된 투자 지원책이 그린 산업단지에도 적용될 계획임.



## 투자 유치가 자바섬 이외 지역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음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자바섬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나타났었지만, 지난해 이후 자바섬 이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 균형 개발 계획에 맞춘 투자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자원 근접 지역에 대한 공장 투자와 수도 이전 계획 등 균등발전 다수 정책이 효과

- 2020년 3분기 이래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자바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투자부 장관이 말하였음. **2020년에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 투자가 이뤄진 비중은 전체 투자의 50.5%였으며, 자바섬 지역의 비중은 49.5%로 낮아졌음.** 자바 이외의 지역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54,994개 프로젝트에 걸쳐 417.5조 루피아(약 292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자바지역에 대한 투자는 98,355개 프로젝트에 걸쳐 408.8조 루피아(약 249억 달러)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2021년 상반기에도 자바섬 이외의 비중은 51.5%, 자바섬에서의 투자 비중은 48.5%였음.
-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투자 실현금액은 442.7조 루피아로 연간 투자 목표 900조 루피아의 49.2% 수준이었음. 올해 조코위 대통령은 당초 856조 루피아를 목표로 하였던 것에서 소폭 증가시킨 목표를 지시하였음.
- 투자부 장관은 자바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인 3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는데,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투자 증진과 관련하여 자바 이외의 지역으로의 다변화를 요청한 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바 이외의 지역 투자를 늘리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음. **거기에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 소재/산업재 조달이 가능한 곳에 공장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한 것들 역시 자바 이외의 지역 투자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개발하여서 경제 성장을 균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바 이외 지역 투자 증가의 계기가 되었음.



## 중소기업 회복을 위한 재정 예산 42% 집행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회복 예산 중 9월까지 42% 수준을 집행하였다고 밝혔음. 3분기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경제활동 제약으로 집행률이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통제 완화에 따라 회복 예산 지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9월 17일까지 국가 경제 회복 예산(PEN)에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 자금 가운데 68.35조 루피아를 집행하였다고 재무부에서는 설명하였음. 이는 올해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잡아둔 162조 루피아의 42% 수준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자금을 은행들에 공급하여 은행들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신규 운전 자본 필요만큼 은행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9월 17일까지 538만의 채무자들이 효익을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올해 4월까지 80만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이 이 소기업 금융지원의 혜택을 누렸음. 9월 17일까지 거진 1,05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 지원 조치도 이뤄졌음.
- 중소기업 및 비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 지원도 진행하면서 올해 9월까지 210만 차주에 대한 신용 담보지원이 이뤄졌음.





## 새 수도의 도로 인프라 구축에 2,750억 루피아 배정



Kementerian  
Pekerjaan Umum Dan  
Perumahan Rakyat

### ❖ 요약 및 시사점

새 수도의 순환도로 건설 및 타 지역과의 연결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선 및 확장 공사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750억 루피아 상당의 금액을 배정하였음.

새 수도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 등 기반 인프라 건설작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 인도네시아 수도 개발의 일환으로 동부 칼리만탄 Penajam Paser Utara 지역, Sepaku sub-district에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약 2,750억 루피아를 배정하였음. **중앙 정부는 신규 수도 지역 일대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Penajam Paser 지역 행정담당자가 발표하였음.
- 행정 및 공공 건설부는 Sepaku sub-district에 순환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음. 이 건설 작업은 2021년 9월 29일 시초석 작업으로 시작되었음.
- 제1공구는 약 617억 루피아, 2공구는 약 558억 루피아, 3공구는 606억 루피아 상당의 비용이 필요한 것을 조사되었으며, 이들 공구를 총 합쳐 순환도로 건설 비용만 1,890억 루피아를 투입하게 되는 것임. 순환도로는 총 연장 5,775km로 구성되며, 1공구 1,750km, 2공구 1,850km, 3공구 2,175km로 건설될 예정.
- 도로 인프라 건설 예산은 재정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새 수도의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 예산은 730억 루피아 정도가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Semoi Sepaku-Petung 1 도로 건설과 Semoi Sepaku-Petung 2 도로 건설에 각각 120억 루피아가 배정되며, Semoi Sepaku-Petung 3 도로 건설에 약 210억 루피아, Semoi Sepaku-Petung 도로 개선에 280억 루피아가 배정됨.



## 국가개발계획부, 새 수도는 환경, 사회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수도 건설 작업이 다소 뒤로 밀렸지만, 새로운 수도 건설과 관련한 지향점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자카르타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새 수도의 건설 배경 중 하나인 만큼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의 건설도 중요한 방향이 되고 있음

- ▶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수도 건설에 적용될 것이라고 국가개발계획부에서는 설명하였음. **새 수도의 건설이 환경, 사회, 문화, 경제 및 정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계획 중이라고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설명하였음.**
- ▶ 환경 보전 개념 이외에도 새로운 수도는 국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들의 창조적인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보였음. 새로운 수도는 다양한 문화가 포용된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고도 하였음.
- ▶ 새로운 수도는 정부로 하여금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열린 정부의 형태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 기간 중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개선점이 도출된 것들을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생태계 참여 지원



###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이 3천만 중소기업들을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중소기업부에서는 IT기업의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마켓에서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디지털 마켓에서 인도네시아산 물품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

- 중소기업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음.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99%의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인력의 97%, 인도네시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3천만의 중소기업들을 디지털 친화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코위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는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산 상품들을 디지털 마켓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판매자들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중소기업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의 하나로 Gojek, GoTo Financial, Tokopedia 등의 인도네시아 거대 기술 기업들이 Bangkit Bersama Movement도 설명하였음.



## 핀테크 성장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금융포용성 강화 필요



###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통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전자상거래 사용이 증가하고 핀테크 이용이 증가하였지만, 금융참여도 및 금융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핀테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함

- Padjajaran 대학교의 경제 전문가가 핀테크 기술의 성장 와중에 금융 포용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핀테크를 통해서 삶의 표준이 증진되고, 더 근대적이고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거래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는 금융 포용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금융 감독청(OJK)가 2019년 조사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금융 문맹 및 포용지수에 따르면 금융 포용성 지수가 76.19%로 2016년의 67.8%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서 뒤쳐진 수준임. 태국의 경우 82%에 달하고 있음.
- 금융 포용성과 함께, 금융 문맹을 낮추는 것도 핀테크 성장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숙제임. 금융감독청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금융 문맹률은 2019년에 38.03%로 2016년의 29.7%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술의 사용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약되고 경제활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높아졌으며, 온라인 쇼핑에서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는 비중도 높아졌음. 앞으로도 관련된 산업들이 더욱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핀테크의 성장 만큼이나 사람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포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